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결성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평소 특별한 기대로써 지켜보는 불사(佛事)가 있다. 15년 전부터 '고요한 소리'가 진행되고 있는 남전대장경 번역 불사가 그것이다. 부처님의 육성을 가장 원형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전대장경의 우리말 번역은 그 의미와 가치가 깊고 크다. '고요한 소리'의 출범과 진행 과정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기에, 이 불사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체험적 정보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 법에 따라 무아적 태도로 불사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결례이므로 피하겠다.

경전 번역은 참으로 특수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불교 언어는 신앙의 계시 언어도 아니고 사변의 논리나 지식만도 아닌 수행 체험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불경 번역은 감동적인 신심만으로도 안되고 전체적인 머리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언어적 소양이나 불교 지식, 사변 이론적 깊이가 반려져 인연을 만나 세인들의 화제 속에 환속하였고, 요란하게 시작 한 그 번역 불사도 유아무아 되었다.

이 '고요한 소리' 불사가 시작되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평소 필명이 널리 알려진 학승 한 분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남전대장경 번역을 선언하였다. 학자 두 분을 연구원으로 하여 단기간에 번역해 내겠다는 것이었다. 평소 '고요한 소리' 불사 내용을 눈여겨보던 분이었는데, 자기 평생의 원력이었다고 말하며 역경 불사를 천명하는 그분의 태도가 낯설었다고 느껴졌다. 그분은 얼마안가 반려져 인연을 만나 세인들의 화제 속에 환속하였고, 요란하게 시작 한 그 번역 불사도 유아무아 되었다.



참불자의 길

결사

옛부터 불가에서는 수행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불교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결사(結社)가 행해져 왔다. 종교사회 운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결사는 출가승단위주의 교단운영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같이 참여하는 결집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불교에서 결사운동은 교단이 미처 해내지 못했던 사원의 유지보수나 종교탄압에의 항거, 경제적 어려움 극복 등에 앞장 서 오면서 종교 운동을 주도했다.

결사운동은 중국 동진시대 혜원 스님이 여산의 동림사에서 맺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무량수불을 모시고 서방정토 왕생을 위한 염불수행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후 혜원의 백련결사는 이상적인 결사운동의 전형적인 시원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통일기를 전후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결사운동이 점차 활발해져 왕실과 귀족의 지원에 의한 화엄결사가 조직되기도 하고,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에 바탕을 둔 염불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758년(경덕왕 17) 발징화상이 간성 건봉사에서 만일염불결사(萬日念佛結社)를 맺고 염불수행을 하다가 29년 만인 786년 31명이 인로왕 보살의 인도로 모두 육신등공(肉身騰空)하여 왕생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결사의 효시다. 9세기 초에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순교하였던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한 결사가 조직된 바 있으며, 9세기 말에는 왕실에서 <화엄경>의 사경과 전독을 위한 화엄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2세기 후반의 결사운동은 화엄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개혁운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불스님

이 개창하여 뒤에 수선사(修禪寺)로 사색되었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천태종 요세스님의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이 두 결사는 기존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

중국 백련결사 시초

지불 정혜결사 대표적

최근 결사운동 이어져

사회변혁운동 성격도

며, 또한 지방의 지식층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방불교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고, 아울러 불교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결사운동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



1998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염불만일회 결사대회.

환경 파괴의 위기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96년 결성된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를 비롯해 동산반야회가 1998년 염불결사의 전통을 이은 염불만일회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생명의존중의 불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적 대중결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비롯 선우도량 수련결사, 대원회 결사, 전국불교신도회 정토결사, 생명나눔살림회의 100결사, 도피안사 바라밀결사 등 사찰과 수행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결사 운동은 대중의 서원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환경등 제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행풍토를 쇄신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 실행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미있는 佛事

이 제대로 이해된다. 경전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經眼)을 갖추는 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사정이 어려우면 경전 번역에 나서는 이들은 극히 조심스럽다. 그런 대로 만족할만한 번역을 하려면 어떤 준비와 축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기에 살얼음 밟듯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요한 소리' 인연은 경전 번역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또 몸이 새기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 불교계가 남전대장경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던 15년 전에, 정확하고도 심원한 문제 의식으로 남전대장경 번역 준비에 착수한 안목은 실로 경탄할만하다. 한국불교의 풍토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초기불교의 언어를 일찍부터 탄탄하고도 주체적인 자세로 수행을 통해 깊이 음미해 온 분이 깨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순전히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가꾸어 온 초기불교에 대한 수행의 안목과 깊이는 놀라기만 하다. 남방불교의 전통적 안목 역시 조심스럽게 검토해 가는 주체적 태도는 초기불교 이해의 격을 달리하게 하고 있었다. 번역의 관건인 경안(經

남전 대장경 우리말 번역

15년동안 신중하게 진행

혹 오해일지는 몰라도, 그 때 나는 불사를 둘러싼 명예욕과 그에 따른 졸속주의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해인사에 대불(大佛) 조성 불사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대불 불사는 아무래도 해인사의 품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으로 보인다. 합리적 비판 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대이다. 이 영리한 세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불성을 일깨우려 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불사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대불 불사는 아무래도 해인사의 품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으로 보인다. 합리적 비판 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대이다. 이 영리한 세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불성을 일깨우려 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불사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대불 불사는 아무래도 해인사의 품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으로 보인다. 합리적 비판 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대이다. 이 영리한 세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불성을 일깨우려 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불사여야 한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san.ac.kr



禪과 21세기

"세간의 번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여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와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얇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얇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곳은 알기 어렵고 얇은 곳은 깊게 하십시오."

선지식의 말은, 근본자리에 서 보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 조금도 없지만,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서장' 통한 선 공부 ⑧

조대제에 대한 답서

낮선 곳은 익숙하게, 익숙한 곳은 낯설게



김태완 부사대 강사·철학

경험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색(色)과 상(相)의 세간(世間)만을 경험하며 그것에만 익숙해져 왔으므로 공(空)과 성(性)의 선(禪)은 낯설기만 한 것이다. 선은 전혀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선이 전혀 미지의 세계인 만큼 선을 직접 맛보기 위하여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는 것 역시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하여 간화(禪話)나 묵조(默照)나 관법(觀法)이니 하는 여러 가지 방편과 수행의 과정이 제안되기도 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느 방법도 세간에서 학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방식처럼 분명하고 손쉬운 그런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세간의 일이란 이미 경험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추하고 학습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것이지만, 선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발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세간의 공부는 의도적인 노

력(有爲行)을 통하여 일정한 과정만 거치면 성취될 수가 있으나, 선의 공부는 그런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의 공부란 무위행(無爲行)이기 때문이다.

무위행이기 때문에 선의 공부에 특정한 육체적 정신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공부를 그르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무위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두(話頭)의 참구(參究)가 그래도 가장 유위행에 빠질 위험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화두의 참구는 그저 가슴 속에 의문(疑問)을 품을 것을 요구할 뿐이고, 어떤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나 과정의 의무적 수행(修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두 참구에도 유

위행의 위험은 있다. 그것은 바로 화두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하려는 의도적 노력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결코 화두가 타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무위행의 공부에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까? 무위행의 공부에서 힘을 얻는 원천은 믿음(信)이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에 관한 신뢰인가? 불교의 진리에 대한 신뢰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선의 체험에 대한 신뢰이며, 조사를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이며, 깨달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며, 자신에게 진리(佛性)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

한 신뢰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공부를 끌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즉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공부가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깊을수록 의문도 커지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알고자 하는 무의식 속의 갈망이 커지는 것이다. 의문이란 알고자 하는 갈망이며, 알고자 하는 갈망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에 비례하여 커져서 여는 힘이 된다.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말과,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서 반드시 여래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라는 말이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공부인은 모름지기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커다란 의문의 덩어리가 가슴 속에 커다란 의문도 해

제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주제: 정진하는 교사, 참여하는 어린이

본회에서는 '정진하는 교사, 참여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을 습득하는 지도자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음

1. 일 시 : 불기 2545년 6월 23일(土) 오후2시 ~ 24일(日) 오후3시
2. 장 소 :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교통편 안내 →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하차(6번출구) 도보 5분
일반버스 : 63-1, 63-2, 56-2, 65, 78, 69 (우역센터앞) 21, 212, 300, 571-1 (봉은사 앞)
좌석버스 : 64-1, 64, 933, 37 (봉은사 앞)
3. 교육내용 : 하하하 호호호 *^^, 특강 1, 2 · 여름나라 게임장군, 우리모두 다같이 노래해♪ 신바람 레크리덴스,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 지대방, 울라울라 체조시간 알뜰달력 풍선장식, 아담법석
4. 교육특징 : 이번 강습회는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게임, 찬불가, 레크리덴스 강의를 분반수업합니다. 꼭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비 : 40,000원 (회원은 30,000원, 균중병은 20,000원)
6.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7. 문의 및 접수 : 02-738-7860 (대) (본회 사무국)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카페)
8.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정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일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승(동산불교대교수) · 문율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종식(동국대교수) · 윤원수(문화재단위원장)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재(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우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경병호(동국대교수) · 계한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성일(승가대교수) · 요주스님(동국대교수) · 정희욱(동국대교수) · 차차성(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편 (50명) · 불교미술과 (30명) · 불교무용과 (30명)	· 불교를 격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시험 1봉 · 주민등록등본 1봉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8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של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시암)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명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